

#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작품전시

익산시 · 시 문화도시지원센터, 21~29일 숨리문화예술회관에서 268명 참여 성과물 만날 수 있어

“익산시민들이 직접 그린 미술작품 보러 가실까요?” 익산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작품전시회를 숨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회는 21일 오후 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캐리커처, 자개 스마트록 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전시 기간 운영된다.

전시되는 작품은 270여 점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업을 참여했던 40팀, 268명이 매주 2시간씩 15회차를 함께 해 완성한 성과물이다. 팀은 20대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합일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미술 전시회를 열기 위해 지원한 '다솜무지개' 팀, 언어적 소통은 부족하지만 주어진 과제를 착실히 해내 작품을 손수 완성한 새소망단기보호기실의 '미상' 팀 등 미술을 향한 시민들의 열정을 만날 수 있다.

미술작품을 선보인 한 시민은 “뽀뿌런 그림을 '1시민 1미술' 사업을 통해 잠시나마 화가가 된 기분이 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시민도 “수업을 들으면서 온전한 나를 위한 배움의 기회



익산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작품전시회를 숨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가 주어져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수업이 끝나고도 계속 그림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는 21~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전시회가 진행되는 숨리문화예술회관의 정기휴관일인 23일(월요일)은 전시회도 휴관한다. 전시 기간 체험 프

로그램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현장에서 매일 선착순 25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www.culturecityksan.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브리 & 디즈니 영화음악 FESTA'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11일 개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지브리 & 디즈니 영화음악 FESTA'가 오는 10월 11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지브리와 디즈니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명곡들을 50인조 오케스트라의 화려하고 풍부한 사운드와 피아노, 마림바, 그리고 뮤지컬 가수와의 협업무대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지브리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아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디즈니의 <알라딘>, <겨울왕국>, <인어공주> 등 유명 작품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오케스트라의 장대함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정교한 무대와 환상적인 연주로 지브리와 디즈니의 매력적인 음악을 통해 원작의 감동을 선사한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2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송준 작가 다섯 번째 개인전 개최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서 25일까지 진행

송준 작가의 다섯 번째 개인전인 'Blue Eclipse Episode 3'가 19~25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에 따르면 나의 모든 작업과 이야기는 무의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오랫동안 겪고 있는 조울증과 강박증 덕분에 인간 무의식의 끝, 밀바다 심연을 마주했고, 먼 길을 돌아 내가 해야 되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파헤치 않고 작품을 통해 꺼내기로 결심했다.

나의 작업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근본의식의 심연인 아뢰야식에 가장 가깝고, 아뢰야식은 세상 모든 무의식의 바다이자 저장고로서 작품 속에서는 그 저장고가 달의 뒷면에 있다고 보며, 인간의 모든 무의식이 달의 뒷면에 새겨져 저장되고 평소 우리는 달의 뒷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다 해와 달이 만나 온 세상이 눈을 감아버리는 그 순간! 무의식의 바다는 열리며 저는 그 순간을 Blue Eclipse로 명했다.

세상 모든 인간의 무의식(아뢰야식)이 달의 뒷면에 새겨져 있다가 Blue Eclipse의 순간 열리



고 펼쳐지는 모습을 포착한 일련의 작품들은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나”이며,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겪고 있는 Double Vision (복시)과 Medicines(약물)로 인한 통증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Blue Eclipse 연작에 매달려 2019년부터 5년 넘게 간절히 달려왔다”며 “그 간절함이 전시장에서 사람들 마음속 무언가와 맞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잠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관영'이라고도 불렀다. 관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관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 외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 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안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6의 중흥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익산시민 화합 위한 가을밤의 소리

21일 익산예술의전당서 '4대종교 한마음 합창제' 개최

익산시에서 지역사회 화합과 치유를 위한 가을밤 4대종교 소리 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21일 오후 5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4년 4대종교 한마음 합창제'를 개최한다.

'2024년 4대종교 한마음 합창제'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종교 대표 합창단이 출연해 익산시민 화합을 위한 가을밤의 소리를 낼 예정이다.

불교에서는 여성 불자들이 구성된 '가람빈가 합창단'이 △비천 △내년의 사랑 △무인도를 부른다. 천주교에서는 익산시 17개 성당의 성가단원으로 구성된 '가톨릭 익산지구 연합성가대'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글로리아(Gloria) △격경말야요 그대를 선보인다.

이어 기독교에서는 80여 명 참여하는 '드림합창단'이 △기쁜 찬양 주 하나님의 백

성 △할레 할레 할레 △변집을 공연한다. 원불교는 1978년 여성들로 시작한 '중앙원 음 합창단'이 △사랑은 늘 도망가 △새벽기도 △불바람에 달이 뜨면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마지막은 4대종교 합창단이 연합하여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며 '4대종교 한마음 합창제' 화합의 장을 마무리 한다.

4대종교 대표자들은 “4대 종교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서로를 인정하며 조화로운 세상 익산시를 만드는 것을 이끌어 가길 희망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의 자랑인 4대 종교가 하나가 돼 교류와 화합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고 종교를 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화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보석박물관, 추석 연휴기간 1만명 방문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추석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보석박물관은 이번 행사가 진행된 4일 동안 1만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방문객들은 옷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사방치기 등 민속놀이와 세공 시연, 금속공예 장신구 착용 등을 참여했다.

추석 행사뿐만 아니라 박해도 명인의 작품과 퀴즈 컬렉션 등 다채로운 전시도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상설전시실 아트갤러리에서는 '타출기법의 대가 박해도 명인의 이순신과 거북선'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거북선은 순은 55kg, 순금 120g으로 이뤄져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거

북선 가운데 가장 크고 무겁다. 명인의 전통 공예 기술이 집약된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기획전시실에는 '퀸즈 컬렉션(QUEENS COLLECTION)'을 통해 영국 왕실 소장품 전시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 왕실에서 사용한 주얼리와 복식, 애장품 등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산업 소장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로, 보석을 넘어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영국 왕실의 소장품을 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연일 방문하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제3회 그래미 어워드 축하 무대 의상도 함께 전시해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청소년 아티스트 페스티벌-밴드슬램' 한국전통문화전당서 개최

'2024 청소년 아티스트 페스티벌-밴드슬램(이하 밴드경연대회)'이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다.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이번 밴드경연대회에는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 밴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팀이 출전해 수준 높은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치어리딩과 댄스팀의 축하 공연 등이 마련돼 관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본선에서 수상한 팀은 10월 5일 JB문화공간에서 쇼케이스 무대를 통해 그들의 실력

을 선보이는 자리를 갖게 된다.

김도영 원장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k팝의 원천은 한국의 전통적 소리 문화에서 기인된다”며 “이번 밴드경연대회가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밴드경연대회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내용은 완산청소년센터,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잠은성 기자